

동 자료는 2010년 10월 6일 19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0. 10.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목 차 >

I. 한·EU FTA 의의 및 주요내용 .....	1
II. 추진 경과 .....	2
III. 분석 방법 .....	3
IV. 거시경제효과 .....	5
1. 성장 및 후생 수준 .....	5
2. 고용 .....	6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7
V. 산업별 효과 .....	8
1. 제조업 .....	8
2. 농업 .....	10
3. 수산업 .....	12
4. 서비스업 .....	14
5. 보건산업 .....	17

# I. 한·EU FTA 의의 및 주요내용

## 1. 한·EU FTA 의의

-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 EU의 GDP는 18.3조불로, 세계 전체 GDP의 약 30%(1위)를 차지

-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

## 2. 한·EU FTA 주요내용

- 상품분야(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는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

한·EU FTA의 상품 양허내용

	한국				EU			
	품목수(개)	(%)	수입액(억 \$)	(%)	품목수(개)	(%)	수입액(억 \$)	(%)
즉시 철폐	9,195	81.7	182.7	66.7	9,252	94.0	318.7	76.6
3년 철폐	625	5.5	60.6	22.2	282	2.9	68.6	16.7
5년 철폐	718	6.4	22.2	8.1	269	2.7	28.1	6.8
(5년이내 총계)	10,538	93.6	265.5	97.0	9,803	99.6	415.4	100.0
7년 철폐	111	1.0	3.6	1.4	-	-	-	-
10년 철폐	399	3.5	3.0	1.1	-	-	-	-
10년 초과	169	1.5	1.3	0.5	-	-	-	-
<b>양허 계</b>	<b>11,247</b>	<b>99.6</b>	<b>273.4</b>	<b>100.0</b>	<b>9,803</b>	<b>99.6</b>	<b>415.4</b>	<b>100.0</b>
양허제외	44	0.4	0.0	0.0	39	0.4	0.0	0.0
<b>전 체</b>	<b>11,261</b>	<b>100.0</b>	<b>273.5</b>	<b>100.0</b>	<b>9,842</b>	<b>100.0</b>	<b>415.4</b>	<b>100.0</b>

주 1) 품목수는 HS 2006, 수입액은 2004~06년 평균 기준

2)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시장진입가격제도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WTO 협정에서의 양허방식)

-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한국은 115개 분야, EU는 139개 분야 개방

## II. 추진 경과

① 한·EU FTA가 체결됨에 따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밀한 분석 작업을 실시

○ 협상내용에 기초하여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 '0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한·EU FTA 영향분석」을 한 바 있으나, 확정된 협상내용과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재분석 추진

② 총 10개 국책연구기관(총괄 KIEP)이 참여하여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각 연구기관들이 해당분야의 경제효과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전체적인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기관간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분석방법, 분석범위 등 분석 틀을 조정

○ 작업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석 틀·방법론·결과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자문\*을 구한 후 최종결과 확정

\* KIEP주관 민간전문가 검토 자문회의 개최('10.9.7)

### Ⅲ. 분석 방법

- ① 한·EU FTA 이행이 성장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Е 모형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분석하되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와의 정합성을 점검(대외研)

\* CGE 모형 :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내부의 상호 의존적인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형

- 단기 효과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모형에 반영하여 추정
    - \*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이 5년 이하 품목은 완전 철폐, 6년 이상 품목은 5년간 감축되는 관세 인하 폭을 모형에 대입
  - 중장기 효과는 쌀 등 개방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관세의 완전 철폐를 모형에 반영하는 한편, FTA 이행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도 고려
    - 생산성 향상효과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이용하여 추정된 값을 모형에 대입
      - ▶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서구 선진경제권과의 FTA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효과를 모형에 대입함.
      - ▶ (제조업) 시장개방, 외국인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이 생산성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이용, 1.2% 증가를 가정
      - ▶ (서비스업)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비공공서비스 부문에만 1%의 생산성 증대를 가정
        - ① 수입관세율 1%p하락에 따라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이 1.2~1.6% 증가한다는 실증 분석
        - ② 1991~2001년 동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15%로 계측됨
- ②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단기와 장기의 산업별 생산 증감액에 불변가격을 적용하고 그 실질 변동금액에 고용계수를 적용하여 분석(노동研)

- ③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분석결과로 도출된 제조업과 농업·수산업의 무역수지 변화를 합산
- ④ 한·EU FTA가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제조업·농업·수산업·보건산업 등은 대체로 업종별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 인하·철폐가 대외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수출입·생산 등의 변화를 분석
  - 서비스 산업의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생산 및 소득변화,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⑤ 각 연구원 판단하에 이러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분석 결과간 정합성을 점검하였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 거시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와 산업별 분석 결과가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측면
    - 특히, 거시분석에서는 FTA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기간을 10년으로 상정한 반면, 산업별 분석에서는 15년까지 연장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큰 요인
    - \* 향후 산업별·품목별 구조조정 기간까지의 영향만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보완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 산업별 분석의 경우 가용 자료 제약 등으로 일정 부분(예 : 통신 시장규모 예측 등) 불가피하게 가정을 전제하였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 증대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측면

향후 산업별·품목별 보완대책이 마련·집행됨에 따라 개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

## IV. 거시경제효과

### 1. 성장 및 후생 수준

① (성장)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한·EU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56% 증가

○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약 5.6%까지 확대 예상

② (후생 수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320억\$) 수준

#### 한·EU FTA가 실질 GDP 및 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

(단위 : %)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10	0.64	5.62
후생 수준	0.18	0.47	3.84

주) 후생수준은 2009년 GDP 대비임

## 2. 고용

- ① 한·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를 최대 253천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0천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개방으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취업자 증가규모가 253천명으로 확대
- ② 한·EU FTA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천명, 제조업 33천명, 서비스업 219천명 증가 예상
- 다만,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경우 농수산업은 3천명의 취업자수 감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천명, 42천명 증가

### 한·EU FTA의 고용효과(누적)

(단위 : 천명)

	단기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장기)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경우
농수산업	△1.7	△3.1	0.9
제조업	4.0	9.4	33.2
서비스업	27.6	41.5	219.0
전산업	29.9	47.8	253.1



###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①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61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sup>1)</sup>

○ 對EU 수출은 25.3억\$ 확대되는 데 비해, 對EU 수입은 21.7억\$ 확대

② 산업별로 보면

○ 농업에서는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100만\$ 적자 예상

○ 수산업에서는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40만\$ 확대 예상

○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95억\$ 확대 예상

#### 한·EU FTA의 무역수지 효과

(연평균, 단위 : 백만\$)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농업	7	38	△31
수산업	10.3	12.7	△2.4
제조업	2,520	2,125	395
계	2,537	2,175	361

1) 무역수지 전망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 개별 부분균형분석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함.

## V. 산업별 효과

### 1. 제조업

- ▶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한국 (HS 10단위 기준) 9,404개 EU (CN 8단위 기준) 7,398개, ② 품목수 기준 3년내 관세 EU 99.4%, 한국 95.8% 철폐
- ▶ (분석 방법) ① 품목별 수입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산, ② 수출입 변화에 따른 업종별 생산효과를 도출

① (수출입) 관세 철폐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對EU 수출은 연평균 25.2억\$, 수입은 21.3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자동차(14.1억\$), 전기전자(3.9억\$), 섬유(2.2억\$) 순으로 증가  
한·EU FTA 체결에 따른 對EU 수출 증가액

(단위 : 백만\$)

	연평균	연도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1,407	1,072	1,574	1,574
전기전자	394	345	418	418
섬유	216	216	216	216
기계	116	107	120	120
석유화학	108	104	110	110
생활용품	77	66	82	82
정밀화학	53	52	53	53
비철금속	10	9	10	10
철강	7	7	7	7
선박	4	4	4	4
제조업 전체	2,520	2,110	2,725	2,725

- (수입) 전기전자(4.3억\$), 기계(3.8억\$), 정밀화학(2.9억\$)순으로 증가

한·EU FTA 체결에 따른 對EU 수입 증가액

(단위 : 백만\$)

	연평균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전기전자	430	391	449	450
기계	383	334	407	408
정밀화학	290	249	311	311
자동차	217	193	230	230
섬유	141	137	142	143
생활용품	93	83	98	98
석유화학	76	68	80	80
비철금속	47	41	49	49
철강	43	43	44	44
선박	19	16	21	21
제조업 전체	2,125	1,900	2,235	2,239

② (생산)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5조원 수준 증대 효과 예상

-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1.9조원)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섬유(0.1조원), 철강(0.08조원) 순으로 예상

한·EU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부문 생산 증가액

(단위 : 억원)

	연평균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19,432	14,345	21,951	21,951
섬유	1,124	1,152	1,124	1,110
철강	842	303	1,087	1,083
생활용품	453	276	535	535
전기전자	273	△73	444	430
석유화학	140	240	88	86
선박	△164	△131	△186	△186
비철금속	△395	△383	△395	△396
정밀화학	△2,483	△2,087	△2,693	△2,693
기계	△2,456	△2,245	△2,564	△2,578
제조업 전체	15,156	9,791	17,772	17,718

## 2. 농업

- ▶ (협상 결과) ① 한국은 1,466개, EU는 2,064개 품목 대상, ② 한국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양허제외 및 현행관세 유지 42개 세번), ③ EU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최대 5년
- ▶ (분석 방법) ① 탄성치 이용 방식과 농업부문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② 기준값과 한EU FTA 이행 결과를 추정하여 양자의 차이를 평가  
 ③ 품목별로 국산과 수입산, EU산과 여타 국가산간에 수입선 대체효과 감안

① (수출입) 향후 15년간 농업 분야 對EU 수출은 연평균 약 700만\$ 증가하고 수입은 약 3,750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수출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사과, 배, 기타조제채소, 비알콜음료, 커피추출물, 간장, 곡물조제식료품, 조제식료품 기타, 마카로니, 담배(비조제품), 권련, 조주정, 면웨이스트, 페이스트리, 설탕 과자류 등 15개 품목

### 한-EU FTA에 따른 농업부문 수출 증가액

(연평균, 단위 : 천\$)

품목	수출증가액
사과, 배 등 15개 품목 합계	7,330

- (수입)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EU FTA에 따른 농업부문 수입 증가액

(단위 : 천만\$)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수입 증가액	3.8	1.4

③ (생산)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 가운데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약 93.0%를 차지함.
-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품목별 생산 감소액

(단위 : 억원)

	연평균	연도별		
		1~5년	6~10년	11~15년
감자 전분	10	0	8	23
돼지고기	828	328	943	1,214
닭고기	218	105	231	319
낙농	323	40	277	651
포도(가공주스)	32	32	32	32
키위	42	18	43	63
토마토(가공)	43	23	52	54
쇠고기	280	58	279	501
<b>합 계</b>	<b>1,776</b>	<b>604</b>	<b>1,865</b>	<b>2,857</b>

- 주 1) 15년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는 품목은 이행 완료 시점의 피해액을 15년차의 합계를 위해 15년까지 연장
- 2) 감자전분, 포도, 토마토의 생산액 감소는 2005-07 평균 기준이며, 키위는 2007년 기준임.
- 3) 축산 부문 생산액 감소는 KASMO<sup>2)</sup> 모형의 결과임. 기타 품목은 정성적 분석 및 탄성치를 이용한 분석결과임.

2)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모형으로 재배업 40개, 축산업 5개 등 총 45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

### 3. 수산업

- ▶ (협상 결과) ① 한국은 408개, EU는 380개 품목 대상, ② 한국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12년(양허제외 품목 3개), EU의 경우 최대 5년
- ▶ (분석 방법) ① 對EU 수산물의 수출입 가격 탄력성을 기초로 수출입 증대효과 분석, ② 생산감소 계측은 수입 증대로 인한 국내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 감소효과와 EU산의 국내산 대체에 따른 생산 감소로 나누어 분석

① (수출입)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출은 연평균 1,036만\$ 증가하고 수입은 1,273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 품목별로 황다랑어(냉동), 생선묵(게맛), 기타어류(냉동), 기타피레트(냉동) 등의 품목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

#### 품목별 수출 증가액

(단위 : 천\$)

	연평균	기간		
		1~5년	6~10년	11~15년
황다랑어(냉동)	1,489	1,072	1,697	1,697
생선묵(게맛)	1,454	1,033	1,664	1,664
기타어류(냉동)	1,050	1,050	1,050	1,050
기타피레트(냉동)	990	705	1,133	1,133
바지락(밀폐)	896	779	955	955
기 타	4,480	3,967	4,736	4,736
합 계	10,359	8,607	11,235	11,235

- (수입) 품목별로는 골뱅이(기타조제), 기타넙치(냉동),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참다랑어(냉동) 등 품목이 크게 증가

#### 품목별 수입 증가액

(단위 : 천\$)

	연평균	기간		
		1~5년	6~10년	11~15년
골뱅이(기타조제)	4,166	2,991	4,754	4,754
기타넙치(냉동)	2,624	1,778	2,613	3,481
참다랑어피레트(냉동)	2,511	2,167	2,683	2,683
참다랑어(냉동)	1,125	1,125	1,125	1,125
기타연체동물(밀폐제외)	619	444	706	706
기 타	1,681	1,129	1,789	2,126
합 계	12,726	9,634	13,669	14,875

② (생산)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9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일반해면어업으로 연평균 42억원, 다음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영향이 커 연평균 27억원의 생산 감소 예상

어업별 생산 감소액

(단위 : 백만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일반해면	4,245	2,712	4,758	5,265
원 양	2,686	2,363	2,825	2,871
천해양식	2,152	1,548	2,259	2,649
내 수 면	335	240	382	382
합 계	9,418	6,863	10,224	11,166

-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넙치류, 참다랑어류, 골뱅이, 불락류의 순서이며 넙치류의 경우 연평균 26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예상

어종별 생산 감소액

(단위 : 백만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넙치류	2,617	1,911	2,743	3,198
참다랑어류	1,891	1,761	1,957	1,957
골뱅이	1,018	739	1,157	1,157
불락류	993	612	1,120	1,248
기타연체동물	819	588	935	935
기 타	2,079	1,252	2,314	2,672
합 계	9,418	6,863	10,224	11,166

주) 기타연체동물에는 주로 기타패류가 해당됨

## 4. 서비스업

- ▶ (협상 결과) ① 협정문 :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 ② 양허안 :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를 개방,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를 개방
- ▶ (한·EU FTA에 의한 서비스 부문 주요 개방 분야)
  - ① (문화/관광)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부여 및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 ② (통신)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 ③ (금융·법률)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 ④ (환경)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외국인 사업자 비차별 대우 보장

### (1) 문화/관광

- ① (공동제작협정) 문화협력의정서에 EU 27개국과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
  -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평균, 억원, 명)

	연평균	1~5년 (2010-2014)	6~10년 (2015-2019)	11~15년 (2020-2024)
생산유발효과	102.5	46.5	85.6	175.5
부가가치유발효과	45.8	20.8	38.3	78.5
고용유발효과	72.3	32.8	60.4	123.7

- ②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
  -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 해외 지불 비용 (연평균, 억원)

	연평균	1~5년 (2010-2014)	6~10년 (2015-2019)	11~15년 (2020-2024)	16~20년 (2025-2029)
출판	21.3	7.3	28.9	29.3	25.8
음악	0.5	0.1	0.4	0.6	0.7
합계	21.8	7.4	29.3	29.9	26.5



## [2] 통신

- ① (통신분야 시장 개방)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하였으나, 이러한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
- 통신서비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업종이며, 외국인이 이미 49%까지 직접투자 가능
    - \*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한정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경영권 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 확대,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 발생
    - \*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584억원, 소득은 255억원 증가 예상
  - 다만, 외국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배당 이익 등 해외 이전 증가 등 영향도 예상
    - \* 국제 전화 및 국제 전용회선 시장에 대한 외국계 사업자의 진출 가능성

## [3] 금융

- ① 한-EU FTA 금융부문은 한-미 FTA에서 합의된 수준으로 개방
-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거래는 한정 개방\*
    - \* 해상·항공·수출입적하보험 등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로 한정하여 개방
- ②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과 EU 금융시장의 상호진출이 활성화 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상업적주채 대한 포괄적인 개방을 통해 유럽 금융사의 국내진출이 촉진되고, 국내은행의 유럽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유럽 선진금융사들의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 촉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

#### (4) 법률

- ①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② 이에 따라,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법률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편의를 제고
  - 국내 로펌들의 선진 법률서비스 노하우 습득 및 서비스 품질 개선노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법률시장의 활성화 기대

#### (5) 환경

- ① 이번 한·EU FTA 협상결과, 하수처리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임
  - 다만 하수처리서비스는 5년 유예기간 이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있어 EU 사업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함
- ②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
    - \* 환경서비스업은 산출액 기준으로 27위이며, 취업자수 기준으로 24위
  - 하수처리서비스 분야는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80%수준 ('04년)으로 '13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산업연구원)
  - 따라서, 유예기간 5년 동안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동 분야의 시장개방 영향은 제한적
- ③ 한-EU FTA의 환경오염유발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하나 시장 개방도가 높을수록 환경오염유발효과가 감소
  - 오염물질배출원단위가 큰 음식료 제조업 등 생산량 감소 예상

## 5. 보건산업

- ▶ (협상 결과) 관세 철폐(3~7년내)
- ▶ (분석 방법) ① 수출입 가격탄력성에 기초하여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정, ② 수출입 변화에 따른 생산효과를 도출

① (수출입 영향 분석) 한-EU FTA가 발효되면 보건산업 분야의 對EU 수출 및 수입 증가 효과는 각각 5년 연평균 1천 6백만 달러, 1억 1백만달러 예상

○ 대 EU 무역수지는 8천 4백만 달러 추가 적자 예상

### 보건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천\$)

	수출증가액(A)		수입증가액(B)		무역수지 추가발생액(A-B)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의약품	10,679	16,986	36,603	93,671	△25,923	△76,685
의료기기	5,652	16,245	31,440	80,310	△25,788	△64,065
화장품	9	33	32,703	54,045	△32,693	△54,012
합 계	16,340	33,264	100,746	228,026	△84,404	△194,762

②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EU FTA 관세 철폐로 인한 보건산업의 생산감소액은 5년간 연평균 893억원으로 추정

### 보건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원)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의약품	△27,416	△81,102
의료기기	△27,273	△67,755
화장품	△34,576	△57,123
합 계	△89,265	△205,980